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외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양대학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심의 고서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FAX: (031)470-3116

길을 묻는 이에게



현대불교 제 299 호
서기 2000년 12월 20일 수요일 19

법공양 페이지

집착없으면 고통도 팔자운명도 없어

오늘은 날이 따뜻해서 같이 한지리하는 것이 마음이 편안합니다. 날이 추울 때는 마음이 상당히 편안치가 않거든요. 그러나 춥든 덥든 한철 인생살이는 구름이 지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한철을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는 문제가 큼니다.

예전에는 선지식들이 소로 비유를 하고 코끼리로 비유를 해서, 입에다 지갈을 물리고 밥을 굵고 세 번째는 몽둥이질을 한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 보세요. 처음에는 소 고삐를 짊 양으로 거선을 하고, 나중에는 소 고삐를 쥐고, 말을 걸러서 하고 항상 남을 섭섭지 않게 하고 남을 아프게 하지 않으면서, 일체를 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항상 내면으로 자비를 쥐고 가는 것과 같은 겁니다. 소 고삐라는 건 자기의 인연줄, 즉 말하자면 근본 자리의 줄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이 고삐로도 비유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배가 고프는데 밥을 주지 않는다는 뜻은 자기가 자기를 아무거나 잡아 먹지 못하게 다스리는 겁니다. 우리가 먹는 걸로 비유를 하는 게 아니라 일체 살아가면서 그저 되나 못되나, 먹을 건지 안 먹을 건지 모르고 그냥 먹는 사람은 절리게 마련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절리게 하지 위해서 아무거나 먹지 않는다. 그래 밥을 굵긴다고 했습니다만 말입니다.

세 번째는 채찍질을 한다. 예를 들어서 마음의 길을 잘못 들면 사기도 치고 도둑질도 하고 또 남을 아프게 하고, 옛날에는 소가 남의 밭에 들어가서 여간 남에게 해를 주지 않는다 해서 다스리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소로 비유를 하기가 너무 멀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빠르게 돌아가는데, 자기가 자기를 다스리면서 남한테 해를 주지 않게 남을 아프지 않게 하는 것이 계율이요 그것이 보시입니다.

계율을 지킨다고 해서 잘못할 때만 계율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잘하는 것도 계율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내놓아가는 그렇게 자기가 자기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길을 걷는데 항상, 예를 들어서 과거를 모르면서 현실을 보고 미래를 보려면 바로 현실을 보고 그랬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공부에 밀접하기도 하지만 안하고는 안됩니다. 이것은 내가 그냥 개별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인 것입니다.

자기마음 근본줄 잡으라

시시때때로 때에 따라서는 여러분한테 할 말이 아주 많아요. 그런데 와서 앉으면 할 말이 없어요. 왜 그렇죠? 여러분이 공부 좀 되신 것 같아요. 우리가 틀어 놓은 도리를 여지껏 공부하면서 걸어왔죠. 틀어 놓은 도리만 알면 그 뜻도 아실 거예요. 남전스님이 고양이 죽인 일 말입니다. 서당 동당에서 고양이 한 마리를 가지고 싸움을 하니 그 남전스님이 그것을 딱 들고서 "대답을 해라. 무슨 연고로 고양이 하나를 놓고 싸우는 건지? 만약에 너희가 대답을 할 것 같으면 이 고양이를 살리고 대답을 못한다면 고양이네 죽는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마 다들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아시긴 하는데 왜 조주스님이 그 소리를 내셨다가 듣고선, 왜 이렇게 건장한 놈을 쥐조? 뛰어도 다 아실 거예요. 대답을 못하니 죽었죠? 죽었는데 조주스님이 그 소리를 듣자마자 그냥 얼른 신발을 벗어서 머리 위에 이고 쓴살같이 달아나가거든요. 무슨 까닭에 신발 한 짝을 벗어서 머리에 이고 나갔는가. 그겁니다.

공부하신 분들은 틀어 놓은 도리만 알면 그것은... 물론 말로 해서도 아니 되지만 뜻으로 다 알고 말없이도 대답할 수 있는 문제가 있죠. 조주스님이 왜 신 한 짝, 짚세기 한 짝을 벗어서 머리에 이고 나갔습니까? 힌트는 말

입니다. 조주스님, 남전스님도 없고 고양이 죽인 사이가 없고 죽은 고양이도 없고... 왜 짚세기를 벗어서 이고 나갔을까?

우리가 지금 이 공부하는 것은 자기 완성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수없이 말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말로만 듣는다면 말로 떨어지고 말아버립니다. 말이 아닌 자기의, 모두 각자 사람에게 다 들어있습니다. 자기와 나와 둘이 아니라라는 것을 알게 되면 내가 말한 것도 둘이 아니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소리 여러분 다 아시죠? '달마대사는 왜 수염이 없는가?' 하는 도리요. 마음 공부하신 분들은 대충 헤아릴 수 있을 겁니다. 수염이 없다고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무슨 까닭일까요? 그건 입으로 말을 안하고도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런 경우에 입으로 말을 해서 대답을 하면은 어찌가 있고 도루묵이 되죠. 우리는 이 공부를 할 때에도 그렇지만 이 말을 하는 것도 말장난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학인이 어느 스님께 물었습니다. "어떡하면 깨우칠 수 있었습니까?" 하구요. 그러니까 그 스님 대답이 "본래 귀신 방귀씨는 더한데 숨겨져 있느냐. 그러니 기르거나 잘 기르면 되지 않겠나?"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기르면 잘 기릅니까?" 하니 "귀신 방귀 털을 더 먹이지도 말고 덜 먹이지도 말고 그 가운데서 먹이면 되느니라." 그 말을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은 허탕을 치고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들어서 이루어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체가 없어서 귀신 방귀 털이라고 해도 되고 귀신 방귀라고 해도 되고. 그건 말 붙이기에 달려있으니 까요. 말을 해서 오하려 잘못될까봐 말 씀들을 안 하셔서 그렇지 대답하실 분이 그득한데 어찌 대답이 없습니까? 오히려 그럴까봐 안 하시겠죠.

조주스님이 짚세기 한 짝을 머리 위에 이고 휘하니 나갔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항상 공부하는 소리가 깃들어서 있습니다. 우리 공부하는 이치가 다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멍 없는 피리를, 소를 타고 피리를 본다. 이런 소리를 다들 아시죠? 그런데 내면 세계에는, 수억겁을 거쳐 나오면서 자기를 형성시키고 자기를 진화시킨 장본인이거든요. 짚래야 짚 것도 없고 불래야 볼 수도 없고 또는 짚래야 짚 수도 없는 거죠. 단 그거는 자기만이 아는 거죠. 그래서 상황이 된다면 몸 속에 있는 의식들로 부터 다 조복을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의 몸 속에는 생명체들이 많아서 그걸 중생이라고 그러죠. 배를 타고 가는 말로 비유하는 것을 많이 들었죠? 선장한테 맡기지 않고 자기가 이 이를 저 이름 부르고 난리니까 배가 뒤집히더라는 얘기로.

그런 것과 같이 우리 몸속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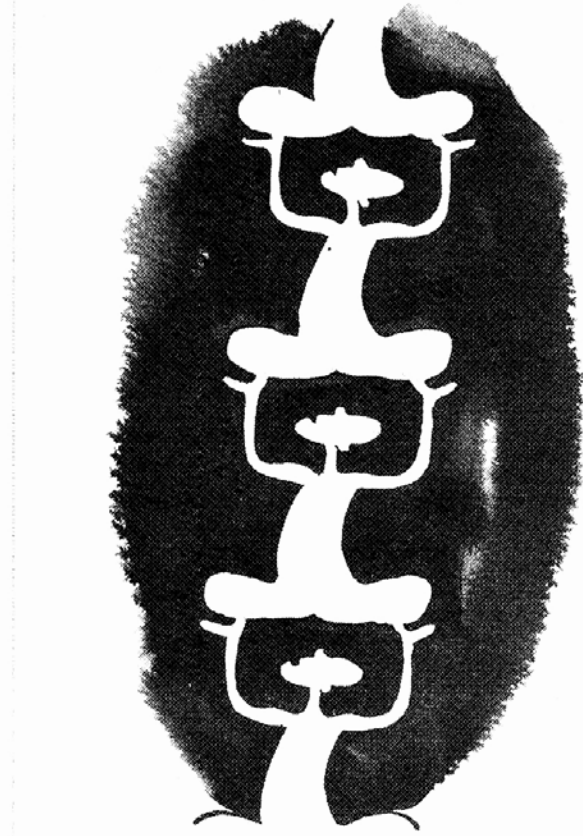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내 마음을 잣대로 삼지 말고 남의 마음 살피는 마음 갖도록

분쟁과 불화 공심으로 조복

생명체들이 많은데 우리 몸은 집과 같고 배와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 마음에 의해서 꼭 달아주느냐는 얘기도, 흡수가 되느냐. 공심이 되느냐 이런 문제예요. 그게 공심이 되지 않는다면 조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지금 시חת말로 이제 타지에서 들어온 새군이나, 그러면 싸움이 납니다. 또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면 싸움이 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화합을 제일로 쳤습니다. 화합! 그래서 내 몸뚱이 안에서 화합을 이루지 못한다면 조복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질신을 머리에 얹은 까닭

내 몸뚱이 속에서 의식들이 인연의 줄로 인해서, 인연으로 인해서 만난 인연들이거든요. 인연 지은 것을, 과거로부터 인연 지은 것을 반연이라고 그러죠. 인연을 지어서 왔는데 내가 말을, 본래 근본은 말이 없죠. 여러분이 다 그렇습니다. 본래 근본은 그렇게 작당하지 않고 남에게 역물하게 안 합니다. 그런데 생명의 의식들이 어떠한 인연을 지어서 왔던지 간에 자기의 인연대로 자꾸 말을 하게 하고 속에서 분쟁이 일

어나게 하고 싸우게 만들거든요. 몸 속에서 생명의 의식들이 그 마음을 통해서 그렇게 못하게 한단 말입니다. 물론 좋게도 이끌어 말을 하게 하지만 나쁜 게도 많이 이끌죠. 반 이상이요. 그러니까 그것을 물로 보지 않았을 때에 조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여러분한테 이끌어 주는 것은 그런 소리, 뭐 '달마대사의 수염이 왜 없느냐?', '물장승이 왜 눈물을 흘리느냐?' 하는 것을 통 얘기 없이 그냥 무조건, 그대로 자기 불성인 주인공을 믿고 모든 걸 거기가 놓아라 그랬습니다. 그 옳고그만 원인은 직결 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화두를 잡는다고 하지만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온 자체가 바로 화두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내가 나온 게 화두인데 또 남한테 화두를 받는 격이죠.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나온 게 화두이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나왔으니가 상대가 있고 세상이 벌어졌고 모두가 있는 거지 내가 없는데 뭐가 있었는가 하는 소리를 항상 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이 내 마음을 다스리는데는, 아까 다스린다는 소리는 그렇게 하다보면,

다 놓고 가다보면은 그냥 저절로. 어느 땐가는 TV를 보면서도 일은 일대로 합니다. 일을 하면서도 공부를 해요. 힘이 없으면 일을 해요.

지금 과학이 발전이 되고 그래서 편리하게 다 쓰죠. 그러니까 아쉬운 게 없죠. 그런데 난리가 났을 때는 전기도 없어지고 다 없어진다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때는 들고 다닐 수도 없어요. 들고 다녀왔거든요. 또 아닌 밤중에 자기가 친구들이 어떻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어디를 찾아다니면서 누구한테 구원해달라고 하겠습니까? 시급한 문제죠.

일체만법 갖춰 있으니

살면서 닦쳐오는 문제

되고 안되고를 떠나

시각 등 6개 감각 느끼며

스스로 해결토록 하세요

나 하나의 마음이, 즉 말하자면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느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느냐?' 물로 보지 않는다면 그것을 퍼뜩 알아낼 수 있죠. 자연스럽게. 내가 있으면 일체 만법이 다 갖추어졌다는 겁니다. 내가 없으면 무효예요.

그래서 내 몸 속에 들은 중생들, 즉 말하자면 조복을 받게 되면 보살로 역할을 합니다. 전부 보살로 역할을 하고 또 그 보살의 수가 모자란다 하면 똑같은 보살을 수없이 만들 수도 있는 것이 마음입니다. 마음! 그 마음이 그렇게 커서 허공에 꽂 차고도 남음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음이라는 건 한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 나가면서 닦쳐오는 대로 해결을 하지 어떻게 요거는 닦쳐올 테니까 요렇게 하고, 조거는 안 닦쳐올 테니까 기쁘다고 합니까? 시시때때로 닦쳐오는 것을 우리가 해결하고 나가야죠. 그래서 부처님 법이기 이전에 우리들의 법은 닦쳐오는 대로 해결사가 돼야 됩니다.

잠만 피아 잘 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자기가 길을 걸다가 막다른 골목에 들어갔다. 그런데 부처님이 계시다면 왜 막다른 골목으로 들어가서 나가지를 못하게 만들어 놓을까?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 사람이 막다른 골목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사람이 될 수 없거든요. 그러니 몇 천 만원을 들여서 공부한 것보다도 더 많은 지혜를 얻을 수가 있던 말입니다. 안 되고 되는 것을 공부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해나가다 즉 말하자면 자기가 구렁텅이에 빠질 때 잠깐 지켜주는 겁니다. 이래야 공부를 하는 게 부딪침과 감각, 촉각, 시각, 미각 이런 여섯 가지를 다 자기가 동시에 느끼면서 해결을 하죠. 몸 속에 있는 그 모습들을 본다면 조그맣다고 아무렇지 않게 생각할 하시겠지만 그게 만약에 크다고 보십시오. 하나를 깨내놓았는데 크다고 보세요. 얼마나 징그럽고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다 거쳐 나왔단 말입니다. 그게 거친 인연들이예요. 우리가 그 모습을 가지고 한 때는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보면은 자꾸자꾸

지혜가 생기고 참회를 하게 되고 또 건너뛰게 되고 그러죠. 그런데 저 아래 축생들은 먹고살기 급해서 그 먹고사는 것만 알지 한번쯤 생각해 볼 여유가 없다는 얘기도. 그래서 사람은 고등동물이기 때문에 부처 될 가능성이 99%다. 이런 말을 하죠. 그런데 똑같이 부처인데 왜 그렇게 사단이 많을까? 똑같은 부처라 하더라도 뿌리는 같으나 모습이 다르고 하는 차원이 다르고 살아 나온 기술이 다르고 모든 게 자기의 습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현실에 가져오는 거죠. 모습도 삶도 다 가지고 다 가지고 나오거든요. 가지고 나와서 살고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 내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난다는 말이 없는 그대로 내 몸에서 모든 생명을 들이내게 조복을 받고 내가 마음을 내면 어떤 용도든 응신으로 화해서 모든 걸 이익하게 해 줄 수 있나. 이것을 생각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완성을 하면 벌써 속에 모든 생명이 오하려 들어 있는 것이 자기가 완성을 하면 모든 게 오하려 부하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죠.

여래의 마음은 공심·공체

여래의 마음은 공심이다. 여래의 몸은 공체다. 공체가기 때문에 크죠. 여러분이 볼 때는 사람 하나지만 공체가기 때문에 크단 말입니다. 그리고 공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안에서도 공용이요 바깥에서도 공용입니다. 우리가 물을 한 그릇 먹었다고 해서 내가 먹은 겁니다. 내가 먹은 게 아니라 속에서 목마르다고 달라고 해서 준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만 먹는 게 아니라 전부 다 같이 나누어 먹는 거죠. 그래서 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의식들이 먹는다는 걸 알고 동시에 그냥 한마음이 돼주죠. 하다 못해 지나가다 보면 소나 무도 말을 하고 들도 말을 하는데 속이 의식들이 얼마나 빠른지. 모든 걸 운명이고 팔자니까 면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 이 공부는 팔자 운명도 없고 고(苦)도 없다고 합니다. 고라는 건 집착만 없으면 없어요. 집착! 집착을 없애야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물을 줬으니 내가 저 물대신 뭐가 오겠지' 이런 집착, 또 '내가 뭘 해줬으니깐 좋게 되겠지' 이런 집착. '부처님한테 뭘을 놓았으니깐 대가가 오겠지' 하는 집착. 이런 집착이 모두 자기의 습을 말하게 못하는 겁니다. 어차피 물을 한 그릇 못다가 부처님전에 올랐으면, 예를 들어서 얘깁니다. 부처님전에 몇 억을 갖다 놓았다 하더라도 한 사이 없이 했다면 그냥 그대로죠. 그러니 돈보다도 수 없는 허공을 다 찬대도 닦쳐오는 것을 우리가 해결하고 나가야죠. 그래서 부처님 법이기 이전에 우리들의 법은 닦쳐오는 대로 해결사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살아나가면서 어떤 일이 생겨도 집착을 하지 않고 살수는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몇 알갱이나 산다고 집착을 합니까? 그리고 미워하고, 너로 인해서 망했다고 하고, 간혹 너로 인해서 흥했다. 이렇 수도 있겠죠. 그것도 집착입니다. 모두가 집착이예요. 그래서 고·집·멸·도 아닙니다. 고라는 것은 이름이예요. 고라는 것은 집착이 없다면 멸한다는 뜻이예요. 멸하면 도예요. 간편하죠. 아주. 우리가 여기 들어올 때 걸음 걸음 발자국을 안 짚어지고 왔다 이거죠. 한 발짝 때어놓으면 한 발짝 없어졌는데도 없어진 발자국에 집착을 하느냐. 없어진 발자국에 집착하기도 하지만 일상 생활에서도 이게 잘못됐다 이런 정말 날 무시하고 이렇게 이렇게 했다 이런 생각이 들면 그게 영 없어지지 않죠. 없어지지 않는 것이 집착이예요.

여러하게 살면 안되나요. 모든 것이 발자국 때어놓은 거와 같구나. 그런 거지 뭐. 살다보면 그런거지 하고 이해해주는 그런 마음. 내 마음에도 잣대를

20면으로 계속

가짜로 인연을 남기고 고갈된 현실에 허겨워하는 사람들

순간순간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현대인들에게 대행 스님이 띄우는 희망의 메시지

삶은 고(苦)가 아니다



대행 스님과 신행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현대불교신문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팩스:031-470-3116)앞이나 인터넷 부다피아(http://www.hanmaum.org)로 연락 바랍니다.

AS인 288쪽
값 6,000원
여시어문